

국제갤러리, 박진아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 개최

January 2025 | 편집부

Page 1 of 1

아트 뉴스

국제갤러리, 박진아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 개최



△ < (빨간 공간 03)
△ (키친 01)
▷ (피아노 공간 06)
< (돌과 연기와 피아노) 전시 전경

국제갤러리가 12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점 K2와 한옥에서 박진아의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를 개최한다. 박진아는 미술관 전시장, 레스토랑 키친, 피아노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카메라 렌즈를 통해 포착한 장면들을 유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으로 화폭에 재구성한 신작 40여 점을 선보인다. 로모 카메라를 보조 도구로 활용해 제작한 <로모그래피> 시리즈를 선보인 이래 줄곧 대상이나 행위, 사건에 천착하지 않는 회화적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자극히 일상적인 사건을 비가시적인 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회화적 사건으로 귀결시키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이번 전시는 모두 실내 장면들을 묘사하며 각 장면은 전문성을 띠고 각자의 업무에 몰입해 있는 인물들을 구사한다.

《돌과 연기와 피아노》에서 돌, 연기, 피아노는 각각 스쳐 지나기 쉬운 평범한 대상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들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직접 방문하고 촬영해 작품 배경이 된 세 가지 장소, 즉 미술관 전시장, 레스토랑 키친, 피아노 공장을 순서대로 지칭하는 제유적 표현이다.

‘돌’로 지칭되는 작품은 작가가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의 초대로 그룹전에 참여한 당시 포착한 장면들로 구성된다. ‘연기’로 응축된 장면들은 국제갤러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키친 내부의 분주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피아노’는 작가가 올해 독일 바이로이트(Bayreuth)에 위치한 슈타인그래버(Steingraeber) 피아노 공장에 방문해 공장 내부의 면면을 작업화한 새로운 시리즈다.

작품에 나오는 장소는 모두 각 업종의 종사자들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관계자’와 출입 금지 표지판 너머에서 각자의 몫을 해내는 일상적 노동의 현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박진아는 회화의 물리적 진실에 근접하고 더 나아가 회화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실험해 왔다. 기법의 측면에서 작가는 드로잉에 가까운 속필로 생긴 이미지를 만들어 인물에 배경에 거의 흡착되는 듯한 인상을 자아낸다.

한편, 카메라는 전통적인 회화적 요소를 가운데 정렬되어 온 위계질서를 전복시키고 회화적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작가의 실험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우선, 박진아는 카메라가 담은 여러 장면을 재조합해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그의 정지된 화면에 특정 시간대가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아가 카메라의 속성 중 하나인 광각 렌즈의 영향으로 직선이 왜곡되는 현상, 카메라 플래시 라이트의 사용으로 배경(공간)이 색연 덩어리(명면)로 납작하게 추상화되는 현상, 카메라 렌즈의 각도에 의해 화면이 파격적인 비율로 분할되는 현상 등을 화폭에 노골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전시는 박진아가 드로잉과 회화, 가상회화와 추상회화, 그리고 사진과 회화 사이에 존재해 온 전통적인 경계선들을 허물고 표면적으로 매끄러워 보이는 회화면 안에 이질적인 간극을 만들면서 ‘회화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다름없다.